

전문대학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 방안 : 혼합연구

조은희¹ · 윤영숙² · 최은진³ · 안지연⁴ · 정소영⁵ · 이사우⁶ · 남호희⁷ · 윤정은⁸ · 안준희⁹

¹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²부산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³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⁴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⁵안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⁶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⁷마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⁸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⁹원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trategies for Introducing a Professional Technical Master's Course in Colleges of Nursing : A Mixed Methods Study

Eun Hee, Jo¹ · Young Suk, Yoon² · Eun-Jin, Choi³ · Jiyeon, An⁴ · So Young, Jung⁵
Sa-Woo, Lee⁶ · Ho-Hee, Nam⁷ · Jeong Eun, Yoon⁸ · Junhee, Ahn⁹

¹Department of Nursing, Kunsan College of Nursing,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Busan Health University,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Professor

⁴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⁵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⁶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⁷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⁸Department of Nursing, Kunsan College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⁹College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job-based educational needs for introducing a professional technical master's course in nursing colleges. **Methods :** The mixed-methods design employed focus group interviews conducted with nursing college graduates to explore their job-based educational needs. Based on the qualitative finding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practicing nurses to assess their levels and priority rankings of job-based educational needs. **Results :** The interview responses yielded four themes and 16 sub-themes: deficient and required job skills in practice, key elements of the master's program, expected benefits of course completion, and necessary support from affiliated organizations for the program.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st-priority items for job-based educational needs were coping with medical disputes, high-risk equipment management, advanced emergency and critical care education, standard curriculum and evaluation system. **Conclusion :** The findings support the need for a differentiated professional technical master's course to strengthen advanced clinical and organizational competencies in nursing practice.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o develop curriculum frameworks and operational models.

Key words : Graduate, Needs assessment, Nursing, Professional competence

교신저자 : Jeong Eun, Yoon / (54068) 7, Donggaeyeong-gil, Gunsan-si, Jeonbuk-do, Republic of Korea

Tel : +82-63-450-3823, E-mail : yoonje@kcn.ac.kr

접수일 : 2026.02.16 / 수정일 : 2026.03.12 / 게재확정일 : 2026.03.13

* 본 연구는 한국간호연구학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보건의료 환경이 고도화되고 간호사의 역할이 진료 보조에서 전문적 의사결정과 통합적 돌봄 제공자로 확대되면서 간호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교육체계의 근본적 전환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의료법 및 고등교육 관련 제도 개편을 기점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간호교육 학제가 4년제 학사과정으로 일원화되었다[1].

국내 간호교육이 4년제 학사과정으로 일원화되어 정착된 지 1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러한 학제 통합은 단순한 외형적 변화를 넘어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시대적 교육개혁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간호사 수는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를 기반으로 2019년을 기점으로 연간 합격자 수가 2만 명 선을 돌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합격자 수가 25,092명으로 매년 신규 간호사가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다[2].

학제 일원화와 간호 인력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 대응하여, 이제는 배출되는 인력의 실무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수준 제고와 이를 뒷받침할 계속교육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현행 학사과정 중심의 간호교육 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보건의료 환경이 요구하는 숙련된 실무 능력과 전문적 역할 수행을 완전히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학사과정은 보건의료 현장의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는 광범위한 기초 역량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인구의 초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복잡성 심화, 그리고 간호 전문영역의 세분화는 심화 지식과 고도의 임상 수행 능력을 요구한다.

간호학에서 학사과정 후 계속교육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 관련 석사 및 박사 배출을 위한 학위 과정은 각 학교의 차별화된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교육과 임상의 균형

을 가진 이론가, 연구자, 임상전문가를 위한 과정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3]. 특히,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맞춰 전문간호사 자격 분야는 오늘날 13개 분야로 확대되어 각 대학에서 고도의 전문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4]. 이처럼, 학사과정 후 계속교육은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고, 임상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5]. 이러한 실무 중심의 고등교육과정은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고급 임상실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과 실무역량 적용에서의 간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6].

한편, 산업현장에서의 실무역량이 강조되면서 석사 수준의 직무중심 기술교육 및 타분야 간 융복합 숙련 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 내 전문기술석사과정(professional technical master's course)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1년에 고등교육법 제49조2항에 전문대학 내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2년간 시범사업 운영 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대학 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하고 있다[7]. 2025년 기준 전국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총 31개교 52개 과정으로 신청 단위별로는 공학 및 보건계열이 전체 과정의 70%를 차지한다[8]. 하지만 2026년까지는 전문대학 내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신청 단위에 간호학과는 제외되어 있었고, 2027학년도부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학과도 신청자격을 실질적으로 충족한다는 이유로 신청 단위에 간호학과가 신규 포함되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4 제5항에 따르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전문기술석사학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석사 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된다[7,9].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현장실무형 직업교육을 위한 계속교육의 한 형태로서, 교육부는 전문대학 내 전문학사,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이어지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도화하고 제반 사항을 정립해왔다[7].

현재 우리나라 간호교육 체계 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일반대학원의 간호학 석사과정, 특정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간호사 자격 과정, 그리고 임상 및 보건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석사학위 과정들은 주로 학문적 연구 역량 강화나 특정 자격 취득하기 위함으로, 해당 과정을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입학정원의 제한으로 입학의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2026년 기준 전국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4,883명[10]인 반면에, 전문간호사 자격 과정은 13분야에서 총 입학정원은 810명으로, 간호사가 실무 경력 개발을 위한 선택할 수 있는 학사과정 후 계속교육 과정은 부족한 편이다. Han과 Lee[11]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 기관에 재직 중인 간호사 중 57.1%는 대학원 진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진학 동기는 1위가 자격 유지 및 승인, 2위가 이론적 기술 습득이었으며, 희망하는 수업과목은 1위가 업무 관련 핵심술기 및 이론, 2위가 전공 심화 교육이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전문화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는 실무 심화교육이라는 도전을 받게 되고, 다양한 이유로 학사과정 후 계속교육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전문대학 내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이 도입 후 기존 석사학위과정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5]에 의하면,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 체계와는 차별화된 직무·기술 교육 및 융·복합 숙련 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의 임상실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 운영 모델, 질 관리 체계 등과 관련한 선행 사례가 부족하다. 따라서 간호학 분야에서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요구도 및 교육과정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핵심적인 교육 수요자가 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내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도를 확

인하고 학문적 이론과 임상 실무 사이의 간극을 좁혀, 고도화된 보건의로 환경이 요구하는 실무 중심 고숙련 간호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전문대학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도입 방안을 위한 직무기반 교육요구도를 확인하여 제도 도입의 가능성 및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 1) 전문대학기술석사과정의 직무기반 교육요구도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다.
- 2)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한 설문지를 통해 양적 자료를 분석하여 전문대학기술석사과정의 직무기반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직무기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양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직무기반 교육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해 순차형 혼합연구(exploratory sequential mixed-methods study) 설계[12]를 적용하였다.

2. 연구단계

본 연구는 1단계에서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인식, 역량, 정책적 지원 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기반 교육요구도 확인하기 위한 영역 및 항목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1) 1단계: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

(1)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회차별로 서로 다른 연구자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자는 면담 수행 전 질적 연구 방법론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 기법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라포형성, 그룹 내 상호작용 촉진, 편견 배제 및 연구자의 민감성 유지 등 면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 심도 있는 사전 학습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사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질문의 내용, 질문 순서 및 면담 진행 방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면담 지침을 표준화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면담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공유하고 동일한 질문지와 면담 지침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면담 직후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과 맥락을 확인하였으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참여자

참여자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상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그룹에 6명씩 총 18명을 대상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대상자를 임상경력 3년 이상 간호사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13]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유능한 단계(competent stage)로 구분하며, 이 단계의 간호사는 간호단위 내 대부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복잡하거나 잠재적인 간호문제를 패턴으로 인식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자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각 지역 간호사 협회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후 연구목적에 적합한 참여자를 추천받는 목적적 표집과 참여자를 통해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14]으로 수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그룹의 주제와 관련하여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선택된 4~8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15], 본 연구에서는 그룹에 6명씩 배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의료기관 종사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면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포커스그룹 인터뷰 전 구성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여, 직책과 위치에 따른 부담감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밝힌 경우 면담에 참여하였다. 포커스그룹의 개수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포화이론이 적용되는데[16],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지 않아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고 판단되어 더 이상의 참여자 모집을 중단하였다.

(3) 인터뷰 질문 개발 및 자료수집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연구 문제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초안을 구성하였다. 질문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전문기술석사 과정 도입과 관련된 연구 문제를 설명한 후, 간호사의 직무 경험과 교육 요구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의 내용, 표현의 명확성, 질문 순서 및 질문 구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질문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질문은 ‘현재 직무수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현재 직무수행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였다. 둘째, 주요 질문은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학위제도와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에 있어 차별화해야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전문기술석사과정이 개설된다면 본인이 다니거나 주위 간호사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였다. 셋째, 마무리 질문은 ‘논의한 내용 외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였다.

자료수집은 2025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룹당 1회씩 총 3회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룹별 숙련된 1명의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다른 1명의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며 현장노트를 작성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편의성, 접근성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온라인 줌(Zoom)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각 그룹별 면담시간은 60분~90분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인사, 동의서 취득, 면담방법, 자기소개, 면담질문을 통한 인터뷰, 면담에 대한 디브리핑, 감사인사 순으로 이루어졌다[15]. 인터뷰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인터뷰 내용의 녹음 및 전사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대상자의 연령, 성별, 학력, 임상경력 등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나, 질문 없이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면담 중에는 참여자의 진술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경험이나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그룹의 역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면담 종료 후 전사 과정에서 현장노트를 활용하였으며,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반영하여 최종 전사본을 작성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Morgan과 Krueger[17]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Graneheim과 Lundman[18]이 제시한 분석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필사본과 녹음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들으며 자료에 친숙해지고,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후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표시하여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의미 단위는 핵심 의미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간결하게 축약하는 압축 과정(condensation)을 거쳐 코드(codes)로 명명하였다. 이후 코드 간 유사성과 차이점

을 지속적으로 비교·검토하면서 유사한 코드들을 묶어 하위범주(sub-categories)를 도출하였고, 다시 유사한 하위범주들을 통합하여 최종 범주(categories)로 추상화하였다. 연구자 간 해석이나 범주화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의미를 재확인하였고, 연구현상이 충분히 설명될 때까지 연구자 간 토론을 거쳐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확보하였다.

(5) 연구의 질 확보

질적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6]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간호사를 목적 표집하여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전사하였으며, 연구자들은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코드와 범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 및 연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연구 과정이 추적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적용성(applic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맥락을 충분히 기술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개인적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해석 과정에서 원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연구 결과가 자료에 근거하도록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담 내용 및 녹음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연구 진행 중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면담 시작 직전에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구두로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2) 2단계: 조사 연구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임상경력 1년 이상이며,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경력 1년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간호사가 기본적인 임상업무 수행 경험을 통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교육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상 경험을 갖춘 시점이기 때문이다[13].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임상간호사의 직무역량, 교육 요구,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 및 기대 내용을 기초로 연구자들이 개발한 구조화된 도구이다. 구성된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에 위해 교육학 교수 1인, 간호학 교수 2인, 임상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총 5인의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는 문항의 내용 적절성, 표현의 명확성 및 문항 간 중복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부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여 설문 문항을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가치관과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료 간의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항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가치관과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료 간의 기능적 소통(정보 전달과 관계 유지가 원활하도록 자신의 내면과 표현이 일치하며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최종 설문지에 대한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사용하였고, 2명의 패널일 때 수용가능한 CVI 최소 절단값인 .80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전체 설문 문항을 모두 사용하기로 하였다[19].

최종 설문지는 총 78문항으로 간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업무능력 11문항, 필요한 업무역량 17문항, 직무역량 강화 교육요구도 21문항, 전문기술석사과정 핵심 요소 14문항,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대 이점 15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요구도 또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간호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부족한 업무능력 .92, 필요한 업무역량 .96, 직무역량 강화 교육요구도 .96, 전문기술석사과정 핵심 요소 .95,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대 이점 .95이었다.

(3)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지면) 설문지 또는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내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직무기반 교육요구도는 평균값 표준화에 따른 상대적 비중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영역(domain) 및 전체(total)에서 각 항목(item)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항목 평균의 합을 100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 비중을 산출하였다. 또한 상대적 비중의 크기에 따라 항목별 순위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비교하였다. 상대적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 하위영역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항목별 상대적 비중은 각 하위영역 내 항목 평균을 산출한 후, 각 항목 평균을 해당 하위영역 전체 항목 평균의 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자발적 참여 원칙,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중단 및 철회가 가능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참

여에 대한 동의는 지면 설문지의 경우 서면 동의로,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설문 시작 전 전자적 동의 절차를 통해 획득하였다. 설문은 자가보고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오프라인 설문지는 개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온라인 설문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모든 설문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자료 입력 및 분석 과정에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거나 부여하지 않았다. 수집된 자료는 학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암호화된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연구자료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예정이며,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포커스그룹 인터뷰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각 6명(33.3%)씩 참여하여 총 18명이었다. 이 중 17명(94.4%)이 여성이었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2.89(±11.13)세였다. 최종학력은 학사가 7명(39.9%), 석사가 6명(33.3%) 이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이 11명(61.1%), 상급종합병원이 7명(38.9%)이었다. 근무형태는 상근직이 12명(66.7%) 이었고, 임상실무경력은 평균 18.35(±9.06)년이었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인 참여자가 10명(55.6%)으로 가장 많았다. 직급은 팀장급 이상의 간호관리자가 8명(44.4%)이었고, 근무 중인 부서는 간호부나 행정 및 교육부서가 10명(55.6%)이었으며,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서의 경력은 5년 미만이 10명(55.6%)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 자격증 현황으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가 4명(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원자격증,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보건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각각 3명(14.3%) 순이었다.

2) 주요 주제 내용

(1) 주제 1: 현재 직무수행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필요한 역량

참여자들은 현재 임상현장에서 수행 중인 직무와 관련하여 근거기반 간호 지식의 적용 어려움, 응급상황 대처 능력 부족, 세대 간 인력관리의 어려움, 중간연차 간호사의 전문성 심화 기회 부족 등을 주요한 한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① 근거기반 표준간호에 대해 지식 부족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근거기반 간호가 실제 임상에서는 경험 중심으로 대체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근거 기반의 간호를 분명히 배웠을 텐데 사실 실무 현장에 오면 이 근거 기반은 없어져 버려요. 다 경험적으로 선배들의 경험적 근거로 인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 중략... 현장에서 물론 간호협회에서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병원 자체적으로 사실 근거 기반의 교육이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참여자 1)”

② 응급상황 대처 능력 부족

고령 환자의 증가와 신규 간호사 유입으로 인해 응급상황 대응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저는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이 입원하시고 그쪽에서 기저 질환을 바탕으로 입원하신 상태에서 수술 후에 응급 상황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병동은 지금 간호 간병 통합 병동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신규 선생님도 많이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신규 선생님들하고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참여자 4)”

③ MZ세대 간호인력관리의 어려움

관리자급 참여자들은 최근 유입되는 신규 간호사들과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로 인해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저는 간호부서장이니까 인력 관리를 주로 하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MZ 세대의 그런 어떤 사고의 방식이, ...중략... 이제 신규 졸업자들은 들어와서 본인의 것들을 손해 보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데 쉽게 동화가 되지 못한다고 그럴까요 어떤 돌발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 요즘은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점점 더 옛날보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1)”

④ 숙련간호사의 전문성 향상 기회 부족

장기간 특정 임상 영역에서 근무한 중간연차 간호사들은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심화하거나 최신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저도 이제 중환자 영역에 있다 보니깐은요 병원 중환자 영역만 해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 지금 새롭게 배우는 이 영역 부분이 맞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수 교육만 통해서만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깐 의사 같은 분들은 보니까 세미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소통해 갖고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나 그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참여자 3)”

(2) 주제 2: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내용

참여자들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이 단순 이론 중심의 학위 과정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심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고위험 환자 관리 능력, 환자 안전 및 질 향상 역량, 자기관리 및 멘탈 관리, 그리고 전문직 간 의사소통과 리더십 역량을 핵심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① 실무심화과정

참여자들은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간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응급 간호와

고난도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심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부정맥 파트나 coronary 파트의 시술에 관련하여 학생 때 배운 것도 있지만 현장에 와서 시술 전후 간호내용이나 증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kidney 파트는 CRRT나 북막투석, 혈액투석 같은것도 요즘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간호해야하는지 알면 좋을거 같고...(참여자 4)”

“투석 환자 약물 투여 같은 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 관리 같은 내과적인 부분도 약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과정을, 하나의 이제 심화 과정 같은 거를 약간 교육에 한 일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3)”

② 환자안전 및 질향상

참여자들은 환자안전 관리와 질향상 활동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표 관리, 위험도 평가,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한 전문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환자안전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지표 관리, QI, 이런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험도 평가, 적정성 평가 이런 것들...(참여자 5)”

③ 자기관리 및 정신력 관리

참여자들은 임상 현장의 높은 업무 강도와 정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자기관리와 정신력 관리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자기 관리 부분, 멘탈 관리 부분이나 자기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참여자 10)”

④ 의사소통 및 리더십

참여자들은 조직 내외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직 간 의사소통과 리더십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저도 의사소통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략.. 이 의사소통은 더 더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간호사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선후배 관계나 위계질서 때문에 소통이 어쨌든 강제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타 부서하고는 전혀 거의 소통하는 데 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와의 이런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좀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참여자 1)”

“저는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중간 연차나 신규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고, 병원 자체 리더십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참여자 4)”

(3) 주제 3: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시 도움되는 부분

참여자들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가 개인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리더십과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 내 역할 수행과 협업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① 개인적 측면

참여자들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를 통해 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직무 만족도와 직업적 자긍심이 증대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학위 취득이 승진 및 보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랄까 만족도 이런 게 좀 더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석사 학위를 소지했을 때 병원에서도 아무래도 승진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급여에서도 조금 더 차이가 있니까..(참여자 11)”

② 업무적 측면

참여자들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가 인력 관리 역량과 리더십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전문직 간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통해 협업이 원활해지고

업무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참여자 1)”

“의사들하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같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협업을. 그런 측면에서 의사소통 역량이 향상되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참여자 9)”

(4) 주제 4: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참여자들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정부, 병원, 대학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제도적 기준 마련, 근무 여건 조정, 재정적 지원, 실습 및 교육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① 관련 기관의 시행규정 마련

참여자들은 전문기술석사 인력의 활용 기준과 제도적 인정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위의 공적 인정과 진로 연계 체계를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병원에서 전문기술 석사가 몇 명 정도 이렇게 고용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를 하면 간호사들도 전문기술 석사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할 거고 병원도 전문기술 석사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독려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참여자 3)”

“만약에 이 과정을 끝내고 나서 박사 과정을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일반 석사를 나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대우가 되는지, 학위를 인정해 준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참여자 16)”

② 병원의 지원

참여자들은 학업과 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조정과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며, 승진 기회 제공과 학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병원 측에서 주말에 한다고 하더라도 근무 조정을 해주거나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7)”

“승진이라든지 보직에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참여자 10)”

“학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학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나온다고 했을 때도 전담 간호사 학비 지원 수준 정도는 같이, 적어도 반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참여자 17)”

③ 대학의 지원

참여자들은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재직자를 고려한 수업 운영 시간 조정, 그리고 실무 중심의 강사진 구성 등 교육 운영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실습병원이 어디인지, 실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실습병원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참여자 2)”

“교육 시간을 야간이나 주말로 조정해서 재직자들이 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5)”

“강사진도 중요한데, 임상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이 하시든지, 실무 중심의 강사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참여자 11)”

2. 직무기반 교육요구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255명으로 여성은 226명(88.6%), 남성은 29명(11.4%)이었다. 연령의 범위는 23세부터 61세이며 평균 연령은 37.85(±9.01)세이었다. 최종학위는 학사가 173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학사 49명(19.2%), 석사 이상 학위자 33명(12.9%) 순이었다. 임상경력은 최소 1년부터 최대 38년의 범위였으며 평

Table 1. Nursing Practice Competency Gaps (N = 255)

Domain & Item	Mean±SD	Relative proportion		Ranks †
		Domain (%)	Total (%)	
Total	2.81±0.73	300.0	100.0	-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e	3.02±0.81	100.0	49.0	-
Coping with medical disputes	3.45±1.06	22.8	11.2	1
Systematic career development	3.09±0.95	20.5	10.0	2
Adaptation to updated clinical guidelines	2.90±0.92	19.2	9.4	4
Administrative and informatics skills	2.89±1.09	19.1	9.4	5
Response to emergency situations	2.78±1.03	18.4	9.0	6
Education of novice nurses and workforce management	2.80±0.90	100.0	18.2	-
Managing multiple novice nurses	2.92±0.99	48.0	9.5	3
Education for novice nurses' adaptation	2.69±0.91	52.0	8.7	7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2.53±0.85	100.0	32.8	-
Conflict mediation among colleagues	2.56±0.95	25.2	8.3	8
Conflict mediation with patients/families	2.56±0.95	25.2	8.3	8
Dysfunctional communication with patients/families	2.51±0.93	24.8	8.1	10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mong colleagues	2.51±0.90	24.8	8.1	10

†Ranks are tied due to rounding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Required Nursing Practice Competencies

(N = 255)

Domain & Item	Mean±SD	Relative proportion		Ranks [†]
		Domain (%)	Total (%)	
Total	3.62±0.68	400.0	100.0	
Patient safety, legal,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3.67±0.71	100.0	29.8	-
Stress management competency for improving job satisfaction	3.75±0.82	20.4	6.1	2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3.72±0.78	20.3	6.0	3
Legal knowledge of nursing practice	3.67±0.82	20.0	6.0	6
Quality improvement management	3.61±0.83	19.7	5.9	9
Patient safety and risk assessment	3.59±0.78	19.6	5.8	10
Clinical practice and advanced technical competency	3.67±0.75	100.0	29.8	-
High-risk equipment management	3.79±0.87	20.7	6.2	1
Continuous learning of guidelines	3.72±0.81	20.3	6.0	3
Emergency response competency	3.64±0.92	19.9	5.9	7
High-risk medication management	3.62±0.93	19.7	5.9	8
Advanced health assessment	3.56±0.86	19.4	5.8	13
Problem-solving and leadership competency	3.59±0.77	100.0	29.1	-
Clinical reasoning competency	3.70±0.84	20.6	6.0	5
Staffing and workforce management	3.58±0.91	19.9	5.8	11
Leadership as preceptor/manager	3.57±0.86	19.9	5.8	12
Critical thinking in complex situations	3.55±0.83	19.8	5.8	14
Coaching and mentoring competency	3.55±0.89	19.8	5.8	14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competency	3.50±0.91	100.0	11.3	-
Conflict management with patients/families	3.50±0.93	50.1	5.7	16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3.49±0.93	49.9	5.7	17

[†]Ranks are tied due to rounding
SD=Standard Deviation

균 임상경력력은 12.58(±8.60)년이였다. 근무기관은 종합병원이 129명(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 63명(24.7%), 전문병원 38명(14.9%)의 순이였다. 근무부서는 병동이 142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부서 57명(22.4%), 특수부서 32명(12.6%), 외래 24명(9.4%)의 순이였다. 본 연구에서 기타부서는 교육·행정업무, 검진센터, 전담간호, QPS 및 감염관리, 지역사회 등이 포함되였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44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간호사 이상 50명(19.6%), 책임간호사 35명(13.7%)의 순이였다. 대상자의 지역 분포는 영남권 121명(47.5%), 호남제주권 64명(25.1%), 수도권 39명(15.3%), 충청권 31명(12.2%)의 순이였다. 전문기술석

사과정에 대한 인지도는 101명(39.6%)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대상자의 87.5%에 해당하는 223명의 대다수 응답자가 과정 개설에 대한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143명(56.1%)이 진학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동료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6명(76.9%)에 달해 해당 과정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직무기반 교육요구도 결과

(1) 간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업무능력

간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업무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능력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나 개선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된

Table 3. Educational Needs for Strengthening Job Competencies

(N = 255)

Domain & Item	Mean±SD	Relative proportion		Ranks [†]
		Domain (%)	Total (%)	
Total	3.74±0.60	400.0	100.0	-
Advanced clinical practice education	3.80±0.63	100.0	34.0	-
Advanced emergency and critical care education	3.90±0.73	14.6	5.0	1
Guideline-based nursing education	3.89±0.76	14.6	5.0	2
High-risk medication education	3.87±0.77	14.5	4.9	3
High-level technical skills training	3.83±0.80	14.4	4.9	4
Advanced medical technology education	3.78±0.75	14.2	4.8	6
Advanced assessment-based preventive care	3.75±0.79	14.1	4.8	9
Advanced education for PA nurse role	3.62±0.87	13.6	4.6	19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education	3.73±0.68	100.0	23.8	-
Legal and dispute management education	3.80±0.77	20.4	4.8	5
Infection control and risk management education	3.75±0.82	20.1	4.8	9
Bioethics and medical ethics education	3.71±0.76	19.9	4.7	14
Patient safety indicators and QI methodology	3.71±0.74	19.9	4.7	14
EBP and quality improvement education	3.70±0.76	19.8	4.7	16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education	3.69±0.72	100.0	23.5	-
Leadership education for managers	3.76±0.76	20.4	4.8	7
Critical thinking and decision-making education	3.74±0.77	20.3	4.8	11
Preceptor and coaching skills education	3.73±0.84	20.2	4.8	12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education	3.64±0.87	19.7	4.6	18
Unit management and resource management education	3.57±0.84	19.4	4.6	20
Self-development education	3.68±0.69	100.0	18.7	-
Stress management and resilience education	3.76±0.82	25.6	4.8	7
Big data and AI utilization education	3.72±0.80	25.3	4.7	13
Data analysis and documentation skills education	3.69±0.85	25.1	4.7	17
Certification-linked professional education	3.53±0.87	24.0	4.5	21

[†]Ranks are tied due to rounding

AI=Artificial intelligence; EBP=Evidence-based practice; PA=Physician assistant; QI=Quality improvement; SD=Standard Deviation

다. 세 개의 하위영역 중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간호사들이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업무능력은 간호 전문성 및 간호 업무(3.02±0.81점), 신규간호사 교육 및 인력 관리(2.80±0.90점),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2.53±0.85점)의 순이었다.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부족한 업무능력은 의료분쟁 및 소송가능성에 대한 대응(3.45±1.06점)이었으며, 간호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경력 개발(3.09±0.95점), 다수의 신규간호사 배치 시에 발생하는 문제 관리(2.92±0.99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간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역량

간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역량은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 시에 해당 업무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역량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실제 업무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업을 의미한다. 네 개의 하위영역 중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간호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업무역량은 환자안전/법규/자기관리 역량(3.67±0.71점)과 임상

Table 4. Key Elements for Differentiated Operation of Professional Technical Master's Course (N=255)

Domain & Item	Mean±SD	Relative proportion		Ranks [†]
		Domain (%)	Total (%)	
Total	3.89±0.62	200.0	100.0	-
Differentiation strategies	3.88±0.64	100.0	57.0	-
Broader practical competency than APN programs	3.91±0.73	12.6	7.2	4
Problem-based and scenario-based learning	3.91±0.74	12.6	7.2	4
Systematic master-level practice education	3.90±0.77	12.6	7.2	6
Practice-oriented degree awarding methods	3.90±0.79	12.6	7.2	6
Utilization of clinical experts as instructors	3.89±0.76	12.5	7.1	9
Flexible academic operation (evening/weekend)	3.88±0.82	12.5	7.1	11
Simulation-based education	3.85±0.77	12.4	7.1	12
Focus on comprehensive nursing practice	3.81±0.80	12.3	7.0	13
Learner support strategies	3.90±0.70	100.0	43.0	-
Standard curriculum and evaluation system	3.94±0.80	16.9	7.2	1
Equal recognition with general master's degree	3.93±0.82	16.8	7.2	2
Scholarship and tuition support	3.92±0.77	16.8	7.2	3
Expansion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3.90±0.77	16.7	7.2	6
Time support from hospitals	3.89±0.81	16.6	7.1	9
Exemption of basic PA nurse education	3.80±0.81	16.3	7.0	14

[†]Ranks are tied due to rounding

APN=Advanced Practice Nurse; PA=Physician Assistant; SD=Standard Deviation

실무 및 전문 기술 역량(3.67±0.75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필요한 업무역량은 고위험 의료장비를 다루고 수행하는 역량(3.79±0.87점)이었으며,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역량(3.75±0.82점), 개인의 성장과 양질의 환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력 개발 역량(3.72±0.78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간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요구도

간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요구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네 개의 하위영역 중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간호사들의 교육요구도가 높은 교육 영역은 고급과정의 임상실무 교육(3.80±0.63점)이었다.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 항목으로는 응급간호 및 중환자 간호 등 분야별 심화교육(3.90±0.73점), 간호업무를 위한 최신 가이드라인 및 표준간호지침 교육(3.89±0.76점),

고위험 약물관리에 대한 교육(3.87±0.77점), 고난도 술기에 관한 교육(3.83±0.80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핵심 요소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핵심요소는 점수가 높을수록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차별화 전략 영역(3.88±0.64점)보다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습자 지원 영역(3.90±0.70점)에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위한 표준 커리큘럼과 평가기준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3.94±0.80점),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일반 석사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3.93±0.82점), 교육부/대학/산업체(병원) 등으로부터의 장학금 및 학비 지원(3.92±0.77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5. Expected Benefits after Completion of Professional Technical Master's Course

(N = 255)

Domain & Item	Mean±SD	Relative proportion		Ranks [†]
		Domain (%)	Total (%)	
Total	3.76±0.63	300.0	100.0	-
Individual level	3.77±0.66	100.0	53.5	-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3.93±0.75	13.0	7.0	1
Enhanced professional confidence	3.93±0.79	13.0	7.0	1
Training for advanced professional roles	3.87±0.77	12.8	6.9	4
Improved job satisfaction	3.87±0.81	12.8	6.9	4
Academic degree advancement	3.84±0.81	12.7	6.8	7
Support for re-employment or job mobility	3.75±0.80	12.4	6.6	11
Career advancement and compensation	3.72±0.90	12.3	6.6	13
Burnout reduction	3.23±0.98	10.7	5.7	15
Organizational level	3.74±0.66	100.0	33.2	-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al education	3.88±0.73	20.7	6.9	3
Improved quality of nursing care	3.87±0.74	20.7	6.9	4
Enhanced unit management capability	3.77±0.81	20.1	6.7	9
Improved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3.75±0.80	20.0	6.6	11
Reduced turnover and higher satisfaction	3.45±0.92	18.4	6.1	14
Societal and professional level	3.79±0.73	100.0	13.5	-
Improved professional image of nurses	3.77±0.78	49.7	6.7	9
Improved patient safety and healthcare quality	3.81±0.76	50.3	6.8	8

†Ranks are tied due to rounding

SD=Standard Deviation

(5)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를 통해 기대되는 이점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를 통해 기대되는 이점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이는 학습자의 교육요구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학의도 요인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는 개인적 차원의 새로운 학습 경험과 자기개발의 기회(3.93±0.75점)와 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신감 향상(3.93±0.79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신규간호사 교육 등 조직 내 교육활동에 교육자로 참여할 수 있음(3.88±0.73점)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간호업무 역량 향상을 통한 간호의 질 제고(3.87±0.74점), 고도화된 전문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3.87±0.77점), 직업만족도 향상(3.87±0.81점) 역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에 따라 기대되는 주요 이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IV. 논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대학 내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직무기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순차적 혼합 연구 설계이므로, 논의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로 얻어진 질적 자료와 이에 근거하여 구조화하여 수집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중심으로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업무능력과 필요한 업무역량을 함께 비교한 결과, 간호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역량의 범위 및 내용은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자료에서도 임상간호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복잡한 임상상황에서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역량에 비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에 업무 부담감 또는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늘날 간호 현장은 환자를 총체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습한 기초 실무 역량으로는 복잡한 간호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환자의 복잡한 요구에 임상적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20]. 따라서 간호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인 통합역량 강화 교육은 전문성 확보뿐 아니라 병원의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학사학위를 취득한 간호사가 산업체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형태는 일반대 대학원 과정, 보수 교육, 학회 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일반 대학원 과정 중 석사과정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바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석사과정과 일반대학 석사과정이 있다. 전문간호사 석사과정은 간호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실무과정으로 2026년 기준으로 전국 총 41개 대학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21], 이는 간호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교 전체 수(2025년 기준 약 200개)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22,23], 학위과정 이후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간호사의 교육적 수요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간호현장에서 요구하는 고숙련 역량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형태로서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전문간호사 석사과정과 같은 기능 및 역할을 할지, 아니면 전문간호사 석사과정과 차별적인 기능 및 역할을 할지는 결국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도입 및 정착과정에서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기본계획에 의하면[8],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기존의 석사학위과정과는 분명 차별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이 기존 석사학위과정과의 차별화는 교육과정 개발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실무 중심의 고도화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산업적 요구를 파악하여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

라의 특성 또는 지역사회 건강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컨대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사회의 경우 산업간호를 특화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고, AI 기술 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기 전문간호사 도입 과정에서도 전문간호석사과정은 기존 대학원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24],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제도 정착 면에서는 확고해졌으나, 전문간호행위 보험수가 개발, 인력배치 기준의 제도화 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25]. 이처럼 전문기술석사과정 역시 기존 석사학위과정과의 차별화를 통해 간호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둘째, 간호업무 수행 시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요구도에서는 포커스인터뷰 결과, 고급과정의 임상실무 교육, 환자안전 및 질관리 교육, 리더십 향상 및 소통관리 교육, 자기개발 교육의 네 가지 하위영역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총 21항목 중 높은 요구도를 보인 항목은 대부분 고급과정의 임상실습 교육(응급간호 및 중환자간호 등 분야별 심화교육), 최신 가이드라인 및 표준간호지침 교육, 고위험약물관리(투석환자, 면역저하환자 등) 교육, 고난도 술기(CRRT, 인공호흡기, A-line 등) 교육이었다. 이와 같은 고급과정의 임상실무 역량은 간호사 역량 중 핵심으로써 상급간호실무(advanced nursing practice) 또는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 등의 용어로 강조되기도 하며, 전문간호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내용과 유사하다[26].

고급과정의 임상실무 역량은 신규간호사의 역량 범위를 초과하는 역량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역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수행이 어렵거나 수행 빈도가 낮아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요구되는 역량으로 평가된다[27]. 특히, 응급간호 및 중환자 간호 등 분야별 심화교육은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전문간호사 자격 분야와 유

사하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전문기술석사 과정과 전문간호사 과정의 차별화 쟁점은 충분히 숙고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내 전문간호사 분야는 총 13개로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만으로는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경계는 명확하지 않다[25,28]. 2024년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지원인력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진료지원 인력으로써 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의 직군 간 업무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28,29]. 따라서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에 따른 석사학위는 이러한 의료현장에서의 정립되지 않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경계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취지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기대는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석사과정은 법에 명시된 직무 외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요구도를 반영하여 도입·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 중심의 일반대학과 비교할 때, 전문대학은 실무 중심의 교육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교육, 현장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실습교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산학협력체계 등의 인프라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업무 수행 시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요구도 중 5위의 우선순위를 보인 항목은 ‘의료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관련 교육’이었다. ‘의료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관련 교육’의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은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 커졌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다. 간호사는 점차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 외에 독자적인 간호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30], 2000년 전문간호사의 등장과 2025년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법에 명시되어 간호업무가 확대된다는 것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환자안

전 관련 간호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는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법적 불안감을 고려하여 간호사 관련 판례 중심의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은 물론, 사례기반 학습 및 문제중심학습 등 다양한 참여형 교수학습법이 개설될 필요가 있겠다.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 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은 일반대학원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이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4 제5항에 전문기술석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은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부합하기 위해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학칙에 규정으로 서면화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8]. 즉, 전문기술석사과정은 대학의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간호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경우 연구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자격 및 졸업자격 등에 대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교육 질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으며, 또한 학습자가 3교대 근무자임을 고려할 때, 산업체의 협조 및 협력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도입 방안을 파악하고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내용 중심으로 직무기반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임상간호사들은 복잡해지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과 요구되는 직무 역량 간의 간극 (competency gap)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사과정 후 계속교육에 대한 수요를 보였다. 하지만 전문기술석사과정이 기존의 전문간호사

과정이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고도화된 임상실무 역량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비롯한 최신 법·제도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의료분쟁 및 보건의료 법규 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확장된 간호 실무 범위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성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전통적인 간호·의학의 교육범위를 넘어서 법학 및 보건정책 등 타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다학제적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대학원과의 차별화된 운영 전략이 필수적이다. 연구 중심이 아닌 현장 직무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무 학습, 시나리오 기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그리고 교대근무자를 고려한 유연한 학사관리 체계가 그 핵심 요소로 도출되었다.

넷째, 2027학년도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학자격은 재직경력 2년이고, 재직경력 산정을 위한 관련 분야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목적이 고숙련 실무형 인재양성에 있으므로 입학자의 실무 숙련정도는 비슷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입학 자격에 재직경력 외에 학업계획서 또는 면접을 통해 입학자의 실무 배경에 맞춤형 심화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직무역량 평가 또는 선수과목 운영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그들의 교육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석사과정과의 차별점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석사 학위의 제도적 위상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후속적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요구도 중심으로 기초 틀을 제시하였으나, 향후에는 대학의 인프라 수준, 교육과정 인증 기준, 그리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취득 간호사에 대한 보상 등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1. Cha YK. The substantial content and current significance of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for the unified four-year bachelor in nursing. *The Journal of Law Education*. 2020;32(3):125-163. <https://doi.org/10.17317/tjle.32.3.202012.125>
2.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nnouncement of national nursing examination passers [Internet]. [cited 2026 March 14]. Available from: https://www.kuksiwon.or.kr/news/brd/m_54/list.do?seq=54
3. Oh KS, Park YS, Lee JH, Oh KO, Ahn YH, Lim JY. A historical trends of doctoral nursing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1):93-107.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93>
4. Kim EM, Choi SJ. Reflections on the prospects of Korean advanced practice nurses : based on Flexner's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2023;16(3):1-10. <https://doi.org/10.34250/jkccn.2023.16.3.1>
5. Martín-Rodríguez LS, Soto-Ruiz N, Escalada-Hernández P. Academic training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nfermería Clínica*. 2018; 29(2):125-130. <https://doi.org/10.1016/j.enfcli.2018.08.004>
6. Wheeler KJ, Miller M, Pulcini J, Gray D, Ladd E, Rayens MK. Advanced practice nursing roles, regulation, education and practice: a global study. *Annals of Global Health*. 2022;88(1):42.

- <https://doi.org/10.5334/aogh.3698>
7.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regarding accreditation of master of technical skills programs at junior colleges for the 2023 academic year [Internet]. [cited 2026 March 14].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7&boardSeq=9050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3&opType=N>
 8.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Professional technical master's course [Internet]. [cited 2026 March 14]. Available from: <https://www.kcce.or.kr/web/majorBusiness/webHigherProfessionalMasters.do>
 9.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igher Education Act [Internet]. [cited 2026 February 14].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8513&joNo=0050&joBrNo=04&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dmission quota for the college of nursing for 2026 has been set at 24,883 [Internet]. [cited 2026 March 14].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tag=&act=view&list_no=1484827&cg_code
 11. Han JY, Lee NY. Making the decision to enter graduate school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16(8): 109-122.
 12. Creswell JW, Plano Clark VL.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2nd ed.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2011. p. 68-71.
 13. Jang KS.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linical career development model of nurses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0. p. 1-201.
 14. Patton MQ. *Designing qualitative studies*. In: Patton MQ, editor.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2. p. 209-258.
 15. Krueger RA, Casey MA.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4. p. 1-280.
 16.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London: Sage Publications; 1985. p. 187-288.
 17. Morgan DL, Krueger RA. *The focus group kit (volumes 1-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8. p. 1-692.
 18. Graneheim UH, Lundman B.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2004;24(2):105-112. <https://doi.org/10.1016/j.nedt.2003.10.001>
 19. Yusof MSB. ABC of content validation and content validity index calculation. *Education on Medicine Journal*. 2019;11(2):49-54. <https://doi.org/10.21315/eimj2019.11.2.6>
 20. Hilsmann N, Dodson C. Western north-western region Canadian association of schools of nursing conference 2025 [Internet]. [cited 2026 March 12]. Available from: <https://nursing.ok.ubc.ca/wp-content/uploads/sites/120/2025/05/WNRCASN-Program-Concurrent-Session-Abstracts.pdf>
 21.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Current status of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advanced practice nursing programs [Internet]. [cited 2026 March 03]. Available from: <https://www.kabone.or.kr/mainbusin/nurse03perform.do>
 22. Korean Association of College of Nursing. Member university [Internet]. [cited 2026 March 11]. Available from: https://www.kacn.kr/sub_college/list.php
 23.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statistics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ternet]. [cited 2026 February 03].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7&boardSeq=10331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3&opType=N>

24. Cho WJ, Lee TW, Kim SJ, Chang SB, Lee WH, Kim GS. A study for curriculum development for advanced nurse practitioner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2;32(6):917-928.
25. Seol ME, Shin YA, Lim KC, Leem CS, Choi JH, Jeong JS. Current status and vitalizing strategie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in Korea.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7;14(1):37-44.
<https://doi.org/10.16952/pns.2017.14.1.37>
26. Hwang I, Yu SY.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of competency for advanced beginner-stage nurses of ward.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2019;44(3): 292-300.
<https://doi.org/10.21032/JHIS.2019.44.3.292>
27. Kim MJ, Kim IS, Lee YR. A study on legal coherence of legislations related to nursing services: focusing on registered nurse, midwife, advanced practice nurse and nurse assistan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8;38(3):420-457.
<https://doi.org/10.15709/hswr.2018.38.3.420>
28. Kim MW.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of nursing act enactment. *Public Law Journal*. 2023;24(2):3-26.
<https://doi.org/10.31779/plj.24.2.202305.001>
29. Kim KT. Issues related to nurses' performance of clinical support duties.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2025;57:449-503.
<https://doi.org/10.22949/kassl.2025..57.013>
30. Sim BH. Legal boundaries of nursing liability and strategies for regulatory reform.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8. p. 1-141.

